

▶ 주요 지표 일일 등락률

S&P 500	7,747.71pt	1.06%
DOW	53,686.11pt	1.18%
NASDAQ	26,584.06pt	1.40%
STOXX 600	649.10pt	0.49%
美 국채 10년물	4.77%	-1.10bp
美 국채 2년물	4.34%	-3.19bp
달러 인덱스	99.00pt	-0.59%
국제 유가 (WTI)	91.30\$	0.32%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시장 금리 하락세 지속되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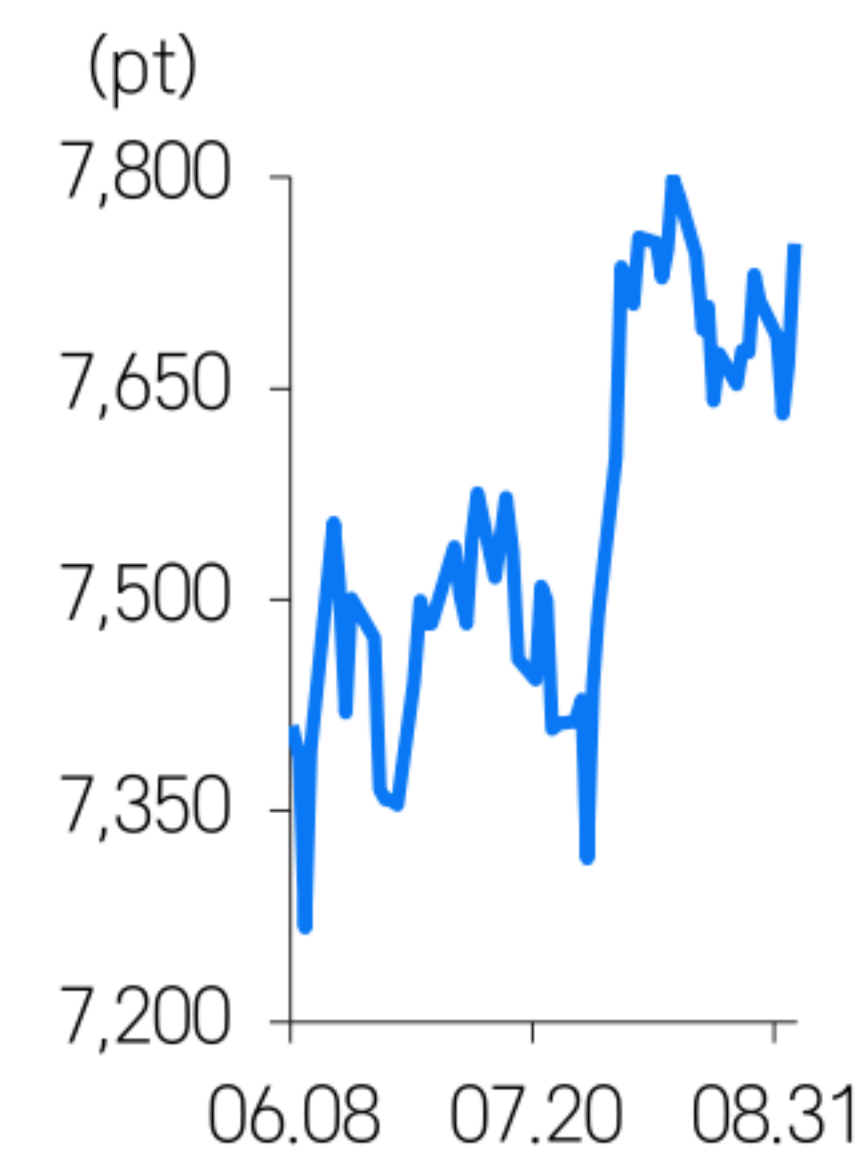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물가 전망 낙관하며 9월 동결 가능성 시사
S&P500, 한 달여 만에 1% 이상 상승. 필 반도체는 0.1% 상승하며 상대적 부진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3 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간 연준 내부에서 매파 진영으로 분류되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완연하다면 금리 인상 단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관측되는 물가 지표에서는 오히려 하락 징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수준의 정책 금리 유지를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시장 내 긴축 우려 후퇴로 이어져, 이틀 전까지 70% 가까이 반영됐던 9 월 금리 인상 확률을 당일 51%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국채 2 년물은 전일 대비 3.2bp 내린 4.34%로 마감했으며, 10 년물의 경우 1.1bp 하락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후에는 금리의 하방 압력이 더 컸지만, 이후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민간 기업 해고 지표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초기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렸습니다. WTI 유가가 0.32% 오름세를 보인 점도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수급으로 인해 엔화가 강세를 나타낸 점 또한 금리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그간 미국 재무부는 일본이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美 국채를 매도한다고 지적하며, 일본 통화 당국에게 금리 인상 등 엔화 강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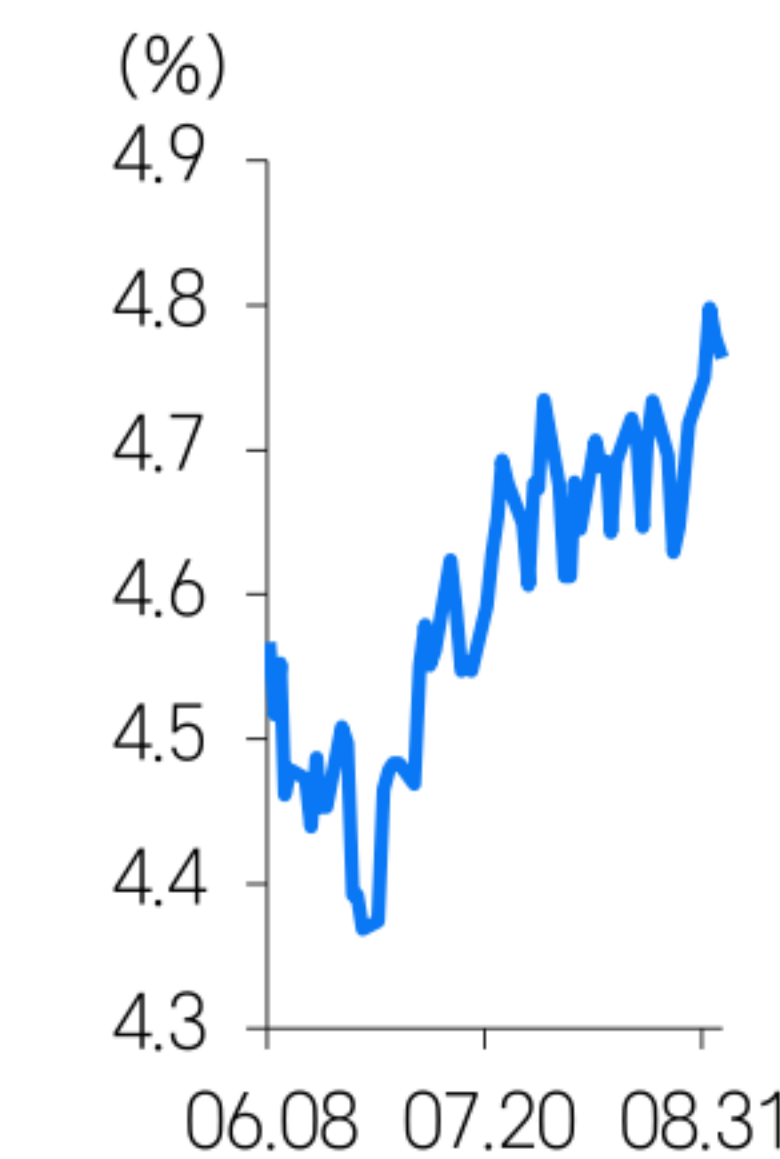
이날 S&P500 은 1.06% 오르면서 한 달여 만에 1%가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DOW 는 1.18%, NASDAQ 은 1.40% 각각 전진했습니다. 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0.11% 오르는 데 그치며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관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중국 메모리 반도체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 소식 또한 악재가 됐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 3% 가까이 밀린 점도 아쉬운 대목이 됐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데이터 솔루션업체 스노우플레이크가 호실적에 힘입어 16.1% 급등하며 S/W 업종 전반의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스페이스 X 가 6.42%, 테슬라가 5.42%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Microsoft 가 2.68%, 메타가 3.01% 오르는 등 여타 빅테크들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탄력적으로 반등함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시세도 견조했습니다.

S&P500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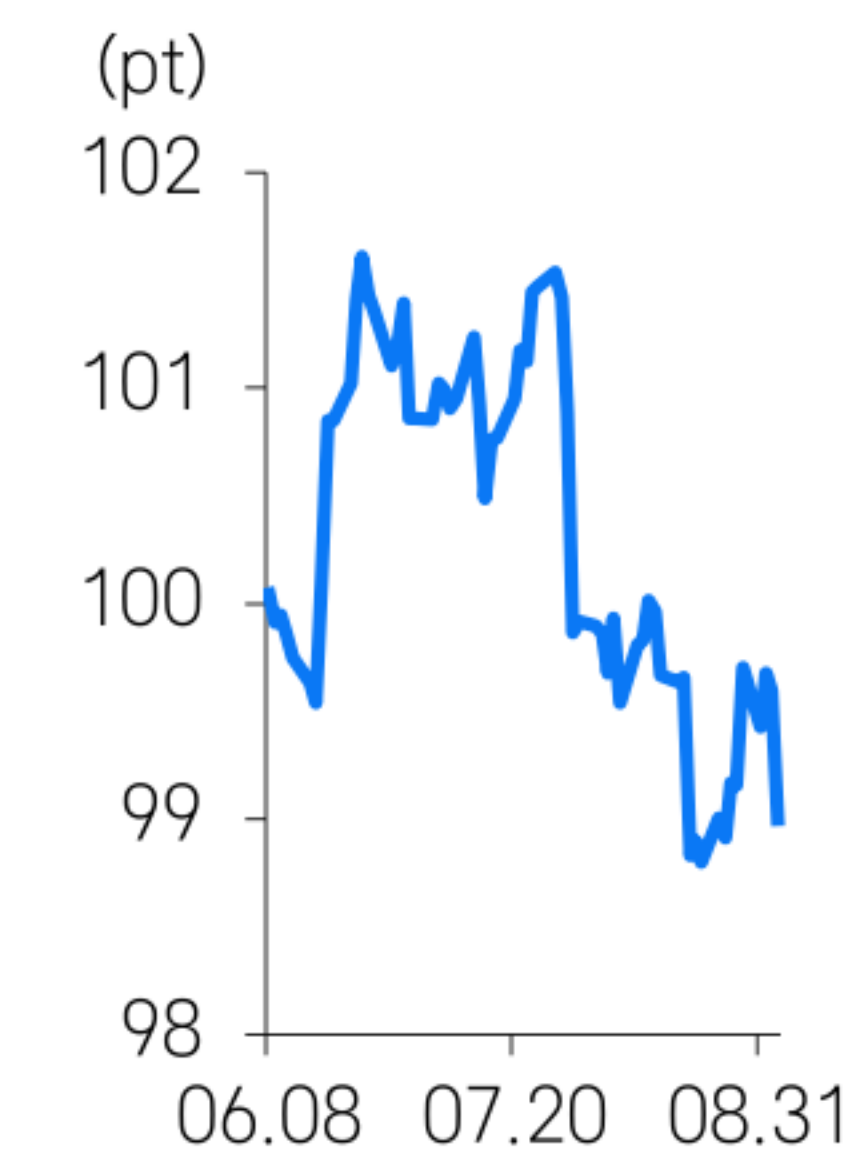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美 국채 10년물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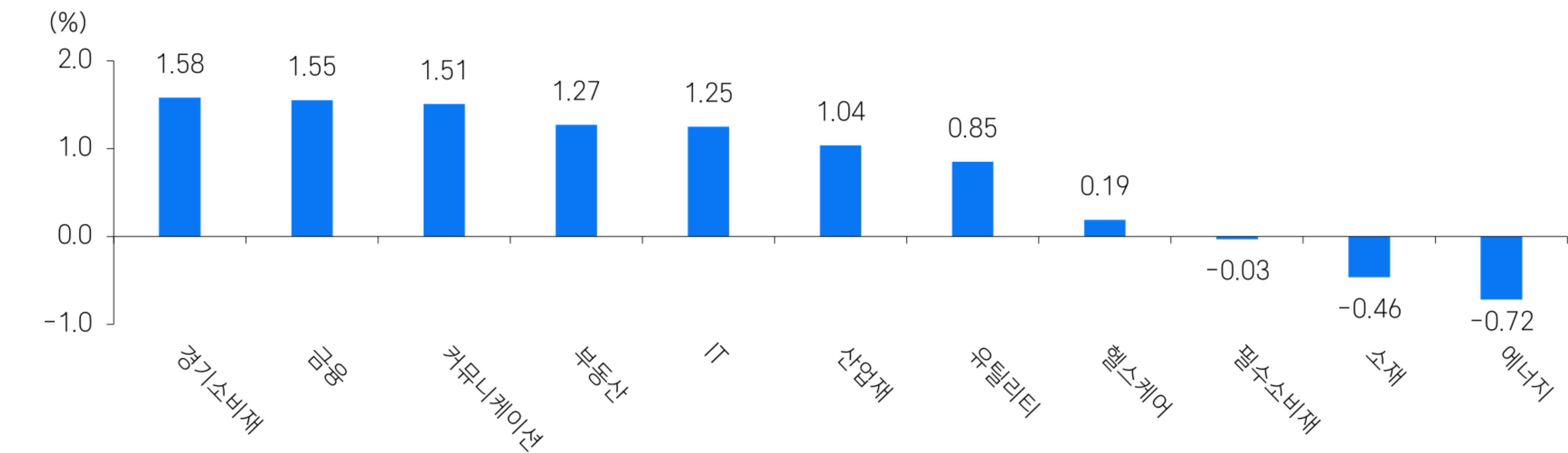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달러 인덱스 3개월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업종별 수익률



참고: S&P500 GICS Level 1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S&P100 수익률 상하위 종목

▲ UP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7.7	정보기술
2	서비스나우	6.5	정보기술
3	오라클	5.7	정보기술
4	테슬라	5.4	자유소비재
5	골드만삭스 그룹	3.3	금융

▼ DOWN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브로드컴	-2.7	정보기술
2	부킹 홀딩스	-2.2	자유소비재
3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1.6	필수소비재
4	애보트 래버러토리	-1.5	건강관리
5	엑손 모빌	-1.2	에너지

참고: 섹터는 GICS Level 1 섹터 분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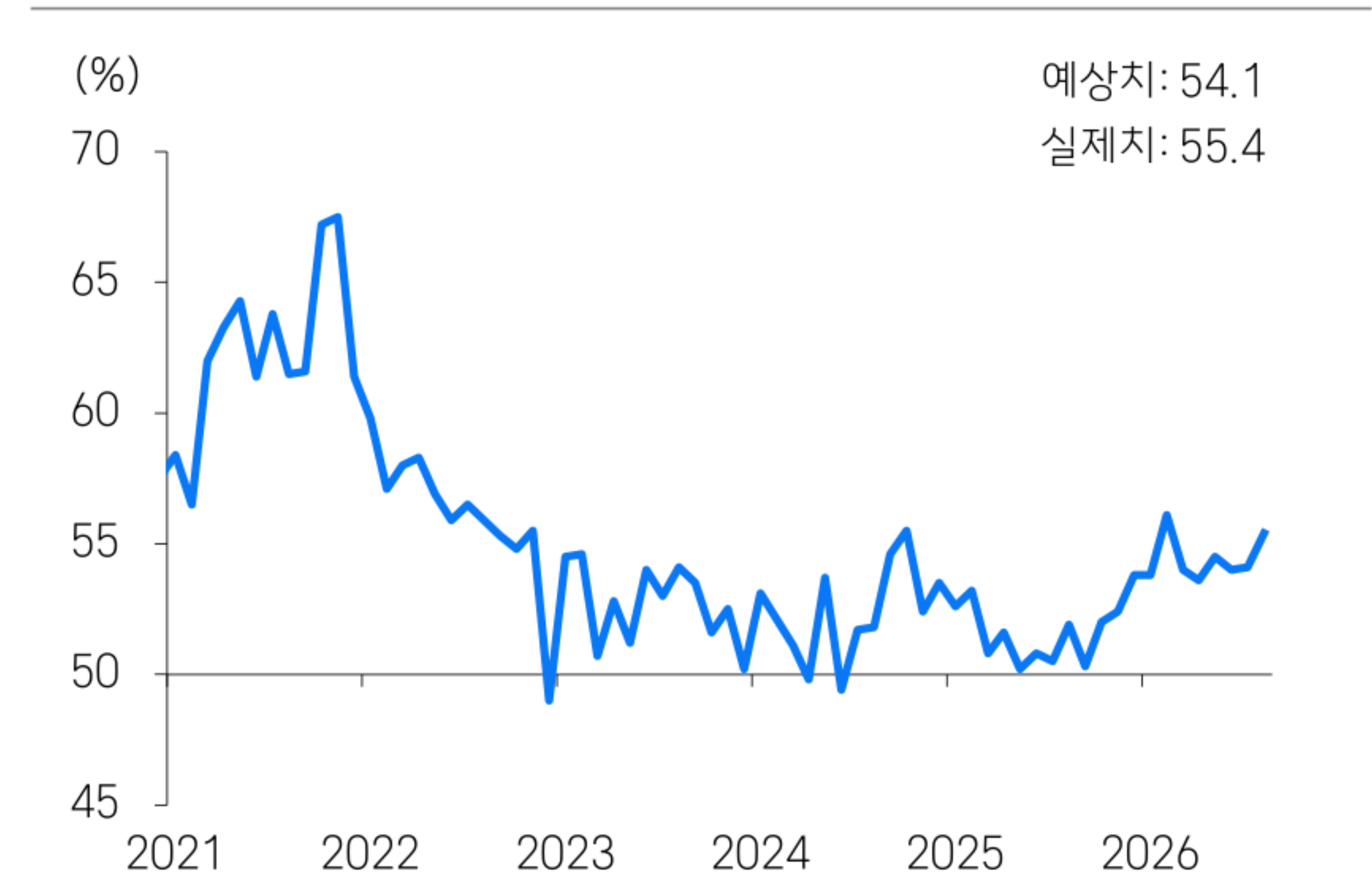
한국 인덱스 관련 지표

지표	수익률	1주일	1개월
MSCI KOREA ETF	0.95	-0.87	12.68
필 반도체 지수	0.11	-4.46	-0.68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0.13	-1.36	2.74
MSCI EM ETF	0.48	-0.21	4.90
NDF 원화 환율	-0.70	1.47	5.30

참고: ETF는 iShares ETF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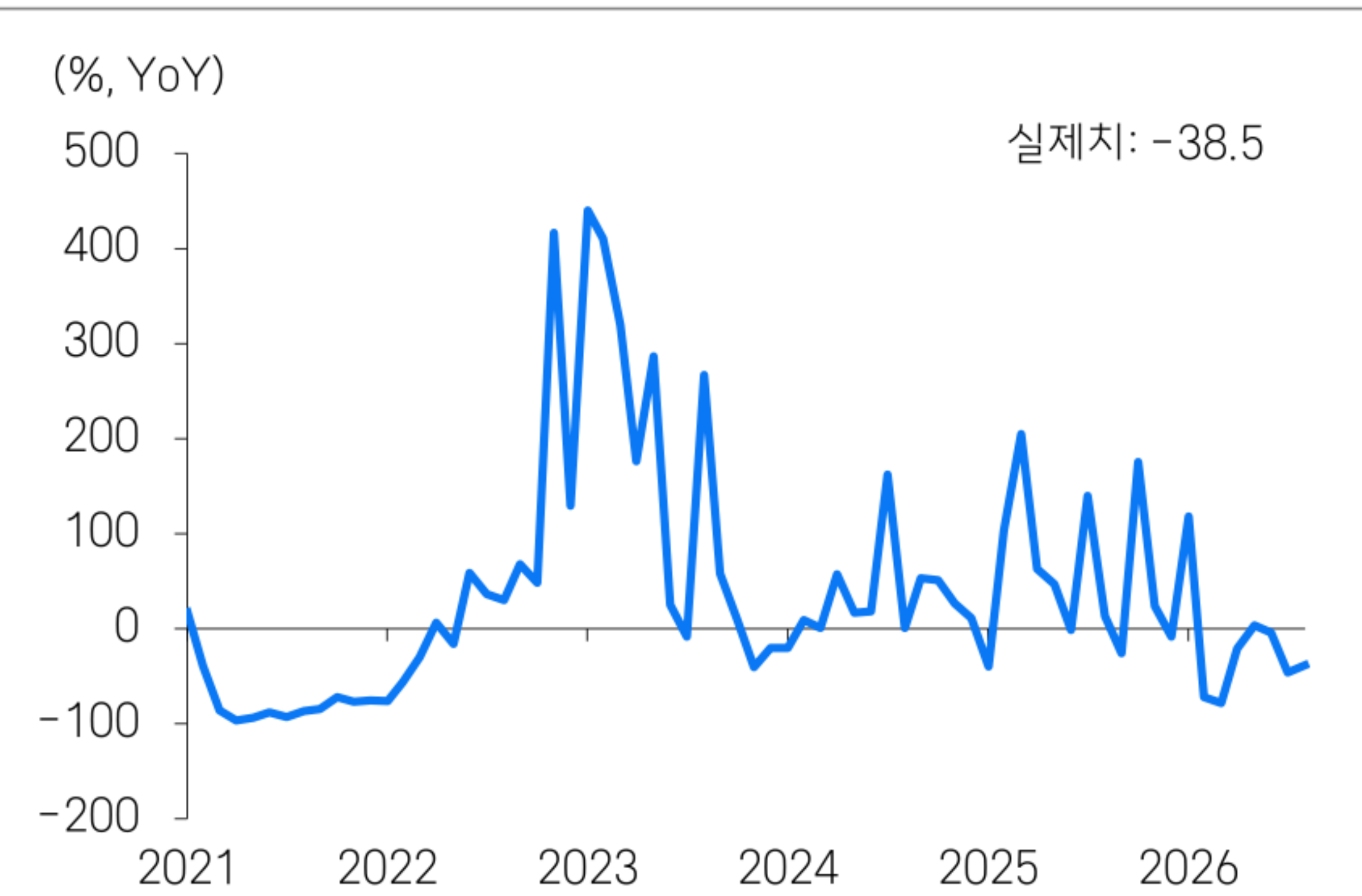
주요 경제 지표

ISM 서비스업 PMI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챌린저 미국 민간기업 해고자 지수 전년비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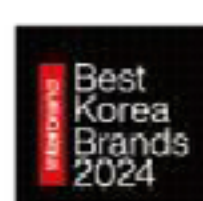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